



내리  
홍리사  
가근스  
원리제  
음  
오래  
래  
참  
음



문화대국을 향한 집념의 한 평생,

可石 洪一植 博士를 생각한다

# 신언서판(身言書判), 군계일학(群鷄一鶴)인 가석 홍일식 선생님과 추억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단아한 조선의 선비를 연상시키는 가석(可石) 홍일식(洪一植) 총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다. 선생님이 생전에 보여주신 일거수 일투족이 내게 많은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인의 분부에 따라 같이 모시고 일하던 이런저런 생각이 두서없이 떠올라 북받치는 감회와 함께 몇 자 적어서 선생님의 영전에 바치고자 한다.

선생님과 여러 가지로 얽힌 추억들은 아무래도 나의 장인이시고 홍 선생님보다 20년 전에 민족 고대의 총장을 역임하신 김상협 선생님과 함께 주로 가로세로로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내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결혼한 후 처가에 세배나 기타 일 때문에 가보면 항상 홍 총장님을 비롯한 듄직한 제자 그룹들이 장인어른과 여러 가지로 다정하고 유쾌한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호기롭게 담소하고 계셨다. 나는 연배의 차이로 초창기에 그 모임에 직접 참석한 일은 드물었다. 다만 고려대학을 사랑하시는 선배들과 어울리는 오랜 세월 동안 고려대의 전통적 학풍과 애교

심과 단결력을 알게 되었고 장인을 정열적으로 떠받드는 여러 제자들과 점차 좋은 추억을 쌓아갔다. 그중에서 단연 군계일학(群鷄一鶴)은 홍 선생님이었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을 모두 갖추신 홍 선생님께서 예의를 갖추어 말씀하시는 대화법 자체는 물론 그 속에 담긴 비유와 표현은 남이 따를 수 없었고 장인 내외분을 받들어 모시는 열성은 비교하기 어려웠다. 선생님은 대학에 남아 우리나라 국문학의 본당을 지켜오신 당대의 거인으로서 특히 육당 최남선 선생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셔서 그 업적은 가히 넘볼 연구자가 없다.

내가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자 홍 선생님이 그동안 힘써 추진하시던 육당 선생의 업적을 현창하는 노력을 물려받게 되었다. <3·1정신 조선광문화 복원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내가 이사장을 맡아 일을 처리하는 관계로 선생님을 가끔 뵈 수 있었다. 또한 홍 선생님께서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작동 현충원에서 거행해온 내 조부인 고하 송진우 선생의 추모식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음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일평생을 고려대학교에서 학자로서, 그리고 총장이라는 지도자로서 이 땅에 남기신 빛나는 업적은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평생 민족문화 그리고 언어와 문학에 일생을 투신하시었고, 누구보다도 조국인 대한민국과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그처럼 사랑하신 인품과 정열을 글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리라. 마지막으로 내게 보내주신 저서가 『오직 고려대학교』였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홍 선생님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경륜과 정열을 한없이 존경하게 되었다.

홍 선생님은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교우로서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요, 선진 지식인들의 훈육을 받는 행운을 누린 분이기도 했다. 인촌 김성수 선생,

기당 현상윤 선생, 현민 유진오 선생, 남재 김상협 선생, 지훈 조동탁 선생, 윤정 김춘동 교수 등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다. 것처럼 기라성 같은 분들을 스승으로 모실만큼 행운과 복을 타고 난 분이 또 있을까. 더욱 감동스러운 일은 본인이 이런 석학들의 가르침을 체화해서 자신의 품격향상과 지식기반을 공고하게 한 일이었으니 그분의 엄청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특기할 것은 평소에 선생님의 경험과 경륜은 제 장인과의 케미스트리에서 더욱 빛을 발하지 않았나 싶다. 군사정권의 힘든 시국에서 모든 언행이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시절 홍 선생님은 장인의 가장 신뢰하는 동지요, 제자의 한 분이였다. 1970년대 초 고려대학은 10·15 사태를 겪었고, 모기를 잡기 위해서 칼을 뽑아도 분수가 있지(見蚊拔劍) 고려대학 하나를 잡자고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는 정권 밑에서 모두들 세상의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시와 폭압의 시기에 총장의 직책을 능름히 수행하시다가 얼마 후 학교를 수호하기 위하여 총장직을 내던진 김상협 은사의 옆에서 홍 선생님은 동지처럼 서로 실의를 달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감동적 광경을 댁에서나 학교에서나 자주 보아왔다. 간혹 홍 선생님은 가문의 전통 가양주인 삼해주(三亥酒)를 가지고 와서 우울한 분위기를 돋우는 광경을 많이 보았으나 정작 나는 그 술을 한 방울도 마셔본 일이 없다.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으신 홍 선생님은 매번 비밀을 지키면서 깔끔하게 이를 수행하셨고, 여러 유관 기관들의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 정치적 감시와 탄압이 심한 당시에 가석 선생님은 처가에 무상출입을 환영받는 드문 제자였다. 이런 분위기는 장인이 억지로 임명받은 총리 재임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시도 때도 없이 홍 선생님을 불러 중대한 현

안에 관한 당신의 아이디어와 판단과 결심을 그와 대조 확인하시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인이 총장을 하시던 어려운 시절 재정적으로 힘든 기숙사 건립, 미묘한 일어일문학과 신설, 캠퍼스 정치의 백미인 우석대학교와의 합병, 애기능 터의 개발제한 해제 등 여러 가지 어렵디 어려운 과제 등을 비밀리에 수완 있게 처리해 내셨음을 나는 자세히 안다. 어느 경우에도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일을 처리하셨다. 아마도 홍 선생님은 본래 타고나신 경륜과 능력 외에도 이런 어려운 일을 완수하심으로써 후일 고려대학교 총장으로서의 현장훈련을 미리 쌓으신 것이 아닐까.



조선광문화 복원위원회 발기인 모임(2015년 6월 11일)  
오른 쪽 첫 번째가 필자, 두 번째가 홍 총장님

홍 선생님이 고대인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총장으로 민족 고대를 위하여 경주하신 헌신과 업적은 우뚝하다. 독특한 소프트웨어로 학교의 전통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바로 “바른교육·큰사람 만들기” 교육 선언, 전통문화와 효 사상 강조 등이 그것이다. 홍 선생님의 업적은 총장이 되시기 전후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초기에는 민족문화연구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지훈 조동탁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 그는 결국 이 유서 깊은 연구기관의 우두머리가 되시어 이를 확장하고 강화하는데 헌신하셨고, 결국 대학부설 연구소로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셨다. 나는 어느 날 지훈의 아드님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이끌려 지훈의 비장된 유품 전시를 감명 깊게 보았고 홍 선생님이 다른 분들과 함께 지훈의 업적과 인품을 발표하시는 것을 경청한 일이 있다. 지훈은 저런 제자를 두었으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고, 홍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는 지훈과 가석간의 아름다운 사제 정리를 마음껏 상상해보았다. 이처럼 총장 되시기 전에 학교에 계실 적에는 민족문화연구원에 다걸기를 하시더니 총장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신 다음에는 재단법인 문화영토연구원을 설립하여 홍 선생님의 독특하고 궁륭하신 아이디어를 널리 펼치셨다. 그 이사장에 취임하신 후 문화영토론을 정립하시고 기관지를 보내주시면 꼼꼼히 읽어서 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었음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가석 홍일식 선생님과 같은 탁월한 학자와 장인을 통하여 함께 일했고,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되살려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연구기관인 민족문화연구원과 문화영토연구원을 통하여 점점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을 청아(清雅)하게 만드신 대한민국의 대표적 선비를 나는 아마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화영토연구” 제5권 1호가 도착했다. 마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한 것이 더욱 흥 선생님을 그리워하게 만들었고, 더군다나 박치완 교수의 “홍일식의 민족문화론과 한국문화의 지역-세계성과 특수-보편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읽어보니 새삼 선생님의 식민성을 거부한 학자적 풍모가 그리웠다.

2024년 9월,

송상현